

책이 있는 자리

vol. 244



Mirae N

책이 있는 자리

vol. 244

소통이 있는 자리

책이 있는 자리

vol. 244
2021년 봄호

미래엔 핵심가치 함께하는 신뢰 막힘없는 소통 번뜩이는 창의 가슴뛰는 도전

(주)미래엔 | (주)미래엔서해에너지 | (주)미래엔인천에너지 | (주)미래엔에듀케어 | (주)오션스위즈 | (주)엔베스터

(주)현대문학 | 전북도시가스 | (주)부흥산업개발 | 목정미래재단 | 미래엔에듀파트너 | 영실업

발행인 : 신광수 | 발행일 : 2021년 4월 12일 | 발행처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 기획 및 편집 : M!실 차하연 T. 02) 3475-3980

커버 디자인 : 미래엔 | 편집 디자인 : BMCI (주)보령C&I T. 02) 2272-4548 | 인쇄 : (주)미래엔(이 책은 미래엔의 CTP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책이 있는 자리』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mirae-n.com

가격 : 500원



“마음의 창을 항상 열어두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 생텍쥐페리 -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그러나 너의 목소리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라.”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읽는 책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다.”

- 찰스 존슨 -

I / I / I vol.321

신반포로 321번지 미래엔 사옥 1층에 새로 생긴 Vol.321. 이곳엔 서점과 카페가 사이좋게 공존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려면 길게 늘어선 책장 끝까지 한참 들어와야 합니다. 책이 만든 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동안 마음은 저절로 차분해지고, 목소리는 한 톤 낮아지지요. 담백한 무채색의 배경은 분주한 머릿속에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책을 끌어안은 카페는 도심의 햇살도 깊게 받아들입니다. 탁 트인 마당은 복잡한 차도와 공간을 분리하고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덕분에 전면이 열려 있는 창가에서도 햇살을 받으며 오롯이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Vol.321은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이곳에서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CONTENTS

08 2021년 CEO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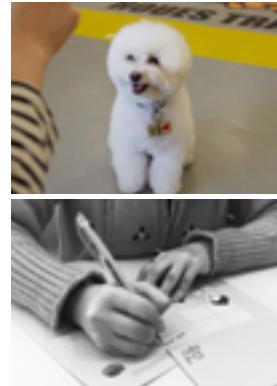
● 미래를 읽다

- 12 기고문 미래 교육, 블렌디드 러닝
- 18 일적인 공간 초등 엠파이어를 만나다
- 24 현장에 가다 10기 신입 사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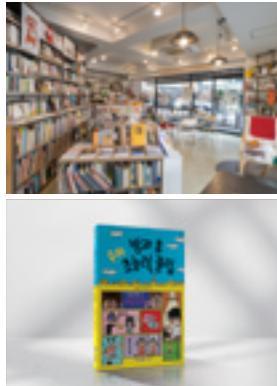
● 마음을 읽다

- 34 미래엔인의 이중생활 저는 행복한 집사랍니다
- 40 앤키피디아 집콕 라이프 노하우
- 44 시시풀풀 집에서 일이 잘 될까?



● 세상을 읽다

- 52 수상한 책방 껌오책방
- 58 세 개의 단어 동화작가 임지형이 말하는 「방과 후 슈퍼 초능력 클럽」



● 미래엔을 읽다

- 66 신간 소개
- 72 미래엔 뉴스
- 78 빨간 우체통
- 80 사우동정



COVER STORY

기울어진 책의 그래픽 모티브와 사진으로
‘Vol.321’ 공간이 지닌 의미를 시작화했다.
2021년 봄호는 ‘창’의 요소를 활용해 봄의
느낌과 온도를 컬러로 적용했다.

2 0 2 1 년
C E O
매 시 지

미래엔 가족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복잡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과 마음 편히 만날 수 없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초유의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미래엔은 작년 한 해 매출을 선방하고 높은 이익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초등 검인정 교과서 개발, 하루 한장 라인업 확대, 만화 1등 달성, 공장 혁신 등 다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남들과는 다른 초격차를 이루어내야만
그동안 쌓아 올린 미래엔의 성과와 명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외부 고객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눈높이를 선도하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유연한 사고와 자세를 통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 보완하고,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 학습, 업무 몰입, 즉시 실천, 협업 등을 통해

성장에 대한 열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래엔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혁신의 물결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사업 영역인 교육과 출판, 인쇄 분야 또한

패러다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관습과 고정 관념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며,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만 성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하거나, 단기 성과에 치우쳐 변화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미래엔 가족과 함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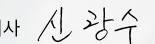
우리가 가는 길이 미래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미래엔 가족 모두 뜻하는 바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미래엔 대표이사  선 광수

미래
를
읽다

12 기고문

미래 교육, 블렌디드 러닝

18 일적인 공간

초등 엠티처를 만나다

24 현장에 가다

10기 신입 사원을 소개합니다

미래 교육의 뉴노멀, 블렌디드 러닝

글_ 김성현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초등교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핵심교사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 현장은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미래 교육을 이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교육 방식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B L E N D E D
L E A R N I N G

코로나19로 축발된 실시간 원격 수업은 기존의 교육 방법과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했던 온라인 수업은 이제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교육이 서둘러 소환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과 실험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시도되고 있고 에듀테크에 기반한 미래 혁신 교육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다양한 시도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교 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리잡아 가는 원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에선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에선 현존감(Presence)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 처음 경험하는 수업 형태에 교육 현장은 혼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이나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 저학년 학생이나 조부모가 지도하는 가정의 경우 온라인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눈 피로감을 호소했고, 수업 중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거나 끈 채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원격 교육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 약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약자는 디지털 문맹의 차원을 넘어 서 컴퓨터로 배우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온라인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교육에서 원격 교육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약자를 어떻게 동기 부여하고, 디지털 학습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교육, 블렌디드 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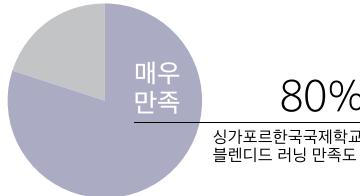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분명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대안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합쳐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교육의 형태는 오프라인이며 온라인 수업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덧입혀지는 형태입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학습 결손, 학습 격차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방역 차원의 대안 교육이 아닌 미래 혁신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말 2021학년부터 중등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최종 목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 형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는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역 차원의 온라인 수업 형태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을 고민하며 블렌디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2020년 말 본교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서 8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높이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체계적인 학급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3년 싱가포르는 사스 사태로 휴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학업 성취도 정상 분포 곡선에서 중위권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와 개별 피드백은 학습 격차 해소에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교사는 각 학급별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주간 학습 계획을 비롯한 과목별 학습 자료를 업로드해 둡니다. 학생들은 개별 과제를 이 플랫폼을 통해 제출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하고 개별 피드백을 온라인에서 제공합니다.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던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주장이 온라인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기장, 수학 과제, 글쓰기 교육, 미술 작품, 리코더 연주 동영상 등 이 모든 것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확인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의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선생님의 체온이 전달되는 온(溫)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수업 중 활발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진행되는 블렌디드 러닝은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의 방향과 비슷하게 오프라인 수업이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즉 교사 발화 시간(Teacher Talking Time)보다 학생 발화 시간(Students Talking Time)을 극대화하는 수업 형태를 지향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수업과 만남이 간절하고 소중함을 몸소 느꼈기

에,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교육, 오프라인에서 효과가 높은 수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모둠 세우기 활동, 과학 실험과 실습, 사회성 증진 놀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의·토론 활동, 온라인 약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보강 수업, 신체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 학습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현존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교사가 실제로 옆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현존감(Presence)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집중력이 약한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으로라도 선생님 곁에서 공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통해 질문과 답을 하고,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콘텐츠의 매개체와 학습 장소만 달라졌을 뿐 그 외의 것은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이 가능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밀접한 소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1:1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월 1회 진행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해야 하는 노력이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덧붙여 블렌디드 수업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식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하고 콘텐츠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학생에게 성취도별 맞춤형 개별 과제(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와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여 동기 부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스스로 책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답들 가운데 교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정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해답들을 얻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줌, 페들렛 등 여러 수업 활동 앱과 교육 콘텐츠로 대표되는 원격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과 발맞춘 오프라인 수업이 균형을 맞춰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블렌디드 러닝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교육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교육적 상처가 큽니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용어 사전

등교 수업(Face to Face Class)

교사와 학생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배우고 익히는 전통적인 수업 형태

원격 수업(Remote Class)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시간 또는 공간을 초월한 상황에서의 교육으로 사이버 학습,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불린다. 원격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나뉜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결합하여 교육 과정상의 학습 목표를 수행하는 학습 형태. 교육 과정상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학습 형태를 결정한 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여 수업 방법을 설계하고 진행한다.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며, 교수자의 관점에서는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Hybrid Instruction)이라고 한다.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 화상 수업 도구로는 ZOOM, 구글 행아웃, 네이버 라인웍스, 구루미, MS팀즈, Webex 등이 있다. 화상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안내 받아 수업에 참여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이 확인 가능 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하는 수업. 학생은 학급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 수업 시간별로 제공되는 과제를 수행하며 학급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제출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사전에 교사가 제작한 녹화 강의 혹은 교사가 안내해주는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가 학습 내용에 대해 피드백하는 수업.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질의 응답 등 원격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학년·교과 특성에 따라 등록된 기존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학습관리시스템(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위드랑 등)에 접속하여 학습한다.

등교 수업

Blended Learning

원격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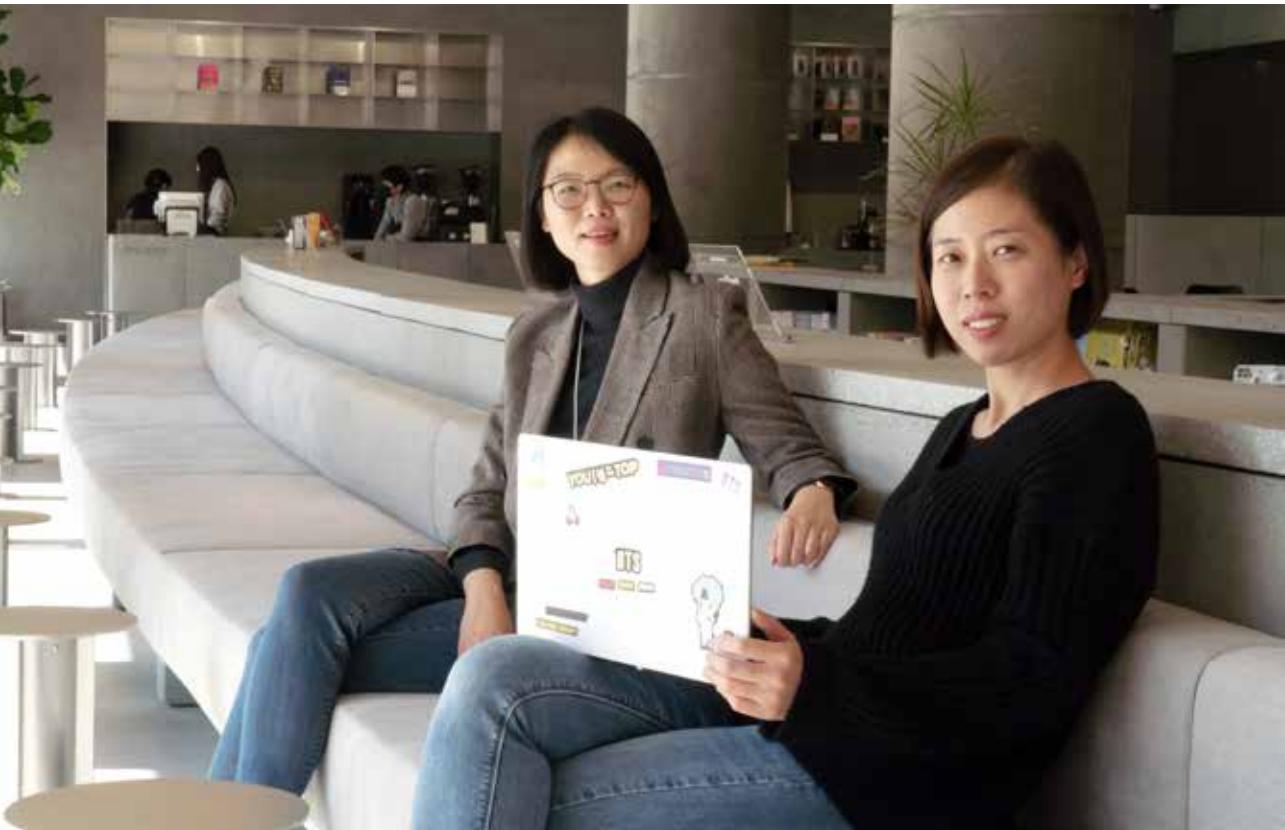
-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인터넷티브 수업부터 블렌디드 러닝까지 미래 교육을 잇는 초등 엠티처를 만나다

글_ 편집실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올봄, 신학기 시작과 함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활동지원 플랫폼 초등 엠티처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등 엠티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달려온 교수학습기획팀 육근혜 과장과 홍세희 과장을 만나 초등 엠티처가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세희 과장 “초등 엠티처는 여러 유관 부서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어요. 교육개발1, 2실에서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자인실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담당, MI실에서 교사들의 라이프케어까지 고민하면, 교수학습기획팀은 이를 웹사이트에서 구현하고 서비스 오픈 즉시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죠. 정보인프라팀과 초등통합팀은 오픈할 때 함께 밤을 지새주기도 했습니다.”

엠티처는 선생님들의 수업 연구를 돋는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초중고 교사들이 모두 한 플랫폼에서 수업 자료를 활용해왔지만,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선생님만을 위한 엠티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담임제로 학급을 운영하며 전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느낄 부담을 고려하여 담임, 또는 교과 전담을 맡은 교사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기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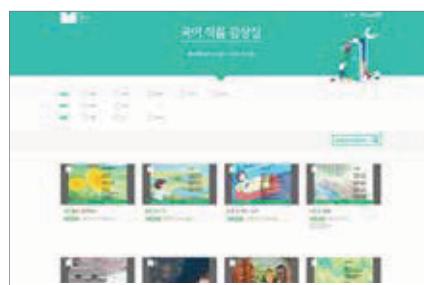
선생님의 8시간을 들여다보다

교수학습기획팀에서는 플랫폼 기획 초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일과를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선생님들의 업무 일지를 취합해 업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시간대별로 어떤 자료와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업에 계신 선생님들께 개발 중인 사이트를 보여드리며 자문을 구하고, 초등 엠티처의 프로토타입이 나온 뒤엔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실 환면에 띄워 보며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선생님들의 피드백도 플랫폼 기획에 반영했습니다.

육근혜 과장 “교과 수업을 위한 Smart PPT 수업과 차시별 수업 자료를 비롯하여 월별 계기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 자료와 수업 PPT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하길 원하는 선생님을 위해 수업 자투리 시간에 어휘나 연산, 한자, 영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10분 공부력’도 추가했고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와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 초등 엠티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



하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돋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등 엠티처에는 이런 변화와 함께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활용, 발전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에듀테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오랜 고민이 반영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며, ‘클릭교사’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하는 숙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육근혜 과장 “교과서의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에 맞는 표준 교수 설계에 따른 수업 화면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넣어 HTML5의 최신 기술로 흥미로운 수업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또 국내 최초로 교사의 화면과 학생의 화면을 이원화하여, 학생은 수업 화면에만 집중하고, 선생님은 수업 부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듀얼 모드’를 개발해 현장 테스트에 성공했답니다. 이 기능은 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곤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홍세희 과장 “초등 엠티처는 ‘개인화 서비스’에도 집중했어요. 기존의 ‘시간표’ 서비스를 개선해서

다 보니, 선생님의 하루 일과 중 자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엔이 가지고 있는 하루 한장의 콘셉트를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은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4C(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가 떠오르면서 교사의 역할도 티칭에서 코칭으로 변

만든 ‘스케줄큐브’는 엠티처의 우수한 수업 자료를 선생님의 수업 진도에 맞춰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수업에 필요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추천하기 때문에 곧 다가올 AI 시대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초등 엠티처를 방문하시게 될 거예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블렌디드 러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막연히 예상했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학교는 ‘혁신교실’에

서 ‘미래교실’로 이름을 바꾸고, 그동안의 ‘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 아닌 ‘현실’로 만들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등 엠티처는 20여 년 전의 블렌디드 러닝을 코로나19 이후의 블렌디드 러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융합뿐만 아니라 여러 수업 기법의 융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환경에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입체적인 개념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국어의 작품 감상실, 스마트 수학 교구, 디지털 과학 실험실 등 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회 교과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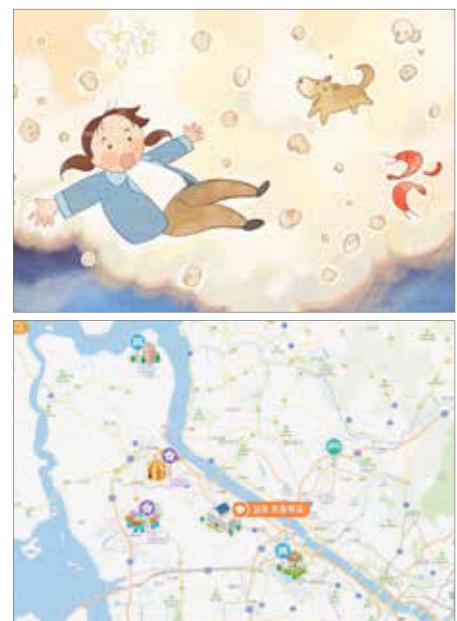




나, 우리, 고장을 배우는 데에 교육용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디지털 지역 교과서로 서비스합니다.

육근혜 과장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내 고장에 대해서 배워요. 교과서는 하나인데 지역은 여럿이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수업 연구를 돋기 위해 초등통합팀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역 자료를 모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실제로 이 수업 자료를 본 선생님들은 ‘정말 이게 가능하나?’며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또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선생님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수업 준비부터 학급 운영까



지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홍세희 과장 “‘연구실’은 미래교육상, 혁신수업N 미래엔 연구 총서 등 미래엔과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 또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콘텐츠들을 좀더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초등통합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어요. 초기엔 자료 공유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를 더 발전시켜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함께 고민해 더 좋은 연구 결과물을 만드는 모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플랫폼

초등 엠티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새 학기 시작에 맞춘 론칭을 목표로 달려온 지 1년 남짓. 하지만 방대한 콘텐츠와 서비스 앞에서 1년이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주관한 교수학습기획팀 외에도 초등통합팀, 디자인실, MI실 등 여러 유관 부서와 개발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초등 엠티처는 올봄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세희 과장과 육근혜 과장은 론칭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외부 환경 변화와 선생님들의 니즈에 맞춰 변신할 초등 엠티처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육근혜 과장 “처음 기획 단계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가까이에서 살피고 고민해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초등 엠티처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되면 좋겠어요.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저희 사이트를 찾으시고, 필요한 콘텐츠를 바로 추천받는다고 느끼시면 좋겠고요.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 폭은 더 커질 텐데 초등 엠티처가 이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플랫폼이 되길 바라요.”

홍세희 과장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구할 때 아무 고민 없이 가장 먼저 찾는 플랫폼이 되면 좋겠어요. 론칭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초등 엠티처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초등 엠티처가 초등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중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어요.”

미래엔 공채 10기 신입 사원을 소개합니다

글_편집실
사진_뉴토피아 프로덕션

봄과 함께 미래엔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신입 사원들이 다른 해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쥐준생에게는 유난히 혹독했던 지난 겨울, 코로나19 시국을 뚫고 미래엔에 입사하게 된 신입 사원의 수는 모두 14명입니다. 신입 사원 입문 교육을 통해 어엿한 미래엔인으로 재탄생한 공채 10기 신입 사원들을 만나보시죠.



지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에 걸쳐 2021년 미래엔 신입 사원 입문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입 사원들은 모두 올 초 입사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된 뒤에 입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채용은 적성 검사부터 최종 면접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신입 사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문 교육은 ‘서로’를 알고, ‘나’를 알고, ‘회사’를 알고, ‘미래엔’을 알아가는 4개의 테마로 진행되었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텁블러 만들기부터 회사의 핵심가치를 개인의 비전과 연결한 비전 하우스 설계, 미래엔 신입 사원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세종공장과 교과서박물관 견학, 선배와의 대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

미래엔은 올해 평소보다 많은 14명의 공채 신입 사원을 선발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채용 인원을 줄이는 업계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행보였는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일자리를 늘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여기는 미래엔의 경영 철학도 바탕이 되었지요.

입사 이후 처음 만난 신입 사원들은 5일간의 교육 기간 동안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더 강해졌고요. 과학팀 지해나 사원은 “코로나 때문에 동기 전체와 어울릴 자리가 없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동기들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교육을 통해 평소 대화를 나누기 힘든 타 부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콘텐츠개발팀 류효정 사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엔을 알아가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엔의 역사와 초등학교 시절 사용했던 교과서를 만날 수 있었던 교과서박물관 견학을 꼽았습니다.

미래엔 우리가 주인공!
공채 10기 신입사원

공통 질문

1. 나는 _____ 사람이다.
2.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 나의 가장 큰 장점
3. 평소 관심 분야, 내가 좋아하는 것
4. 앞으로 미래엔에서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Q&A

초등국어팀 신지원

1. 나는 ‘시계 같은’ 사람이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처럼 저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제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2. ‘성실히’입니다. 성실히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렇게 얻은 기회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 전시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 생각과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 학창 시절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과서는 언제든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초등국어팀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교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유익한 교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어팀 장경주

1. 나는 ‘물 같은’ 사람이다. - 담는 그릇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뀌듯, 저 역시 제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맞춰나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입니다.
2. 연애 상담을 잘 해줍니다! 대학생 시절 남의 연애 상담은 정말 기억하게 잘 해줬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3. 소설 읽기를 좋아해요! 김애란 작가님이나 최은영 작가님처럼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 재미있거나, 흥 와닿는 것들을 특히 좋아해요.
4. 지금은 빨리 일을 배워서 팀원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멀리 보면 저희 팀원 분들 같은 사람, 후배가 보았을 때 감탄하게 되는 커리어를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등수학팀 배정현

1. 나는 ‘오똑이 같은’ 사람이다. -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맡은 일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해냅니다. 앞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팀원 분들과 협업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3. 우리 집 강아지 ‘동이’를 좋아합니다. 같이 있어도 계속 보고 싶고, 저를 매일 웃게 하고 제게 힘을 주는 소중한 저의 ‘동타민’입니다.
4. 앞으로 제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잘 해내 팀과 미래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서 많은 분들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영업팀 전지현

1. 나는 ‘칭찬을 듣고 자라나는’ 사람이다. -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2. 습득력이 좋습니다. 가르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공연 관람을 좋아합니다. 연극, 뮤지컬, 인디 밴드나 아이돌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을 즐깁니다.
4. 미래엔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왼쪽부터
아동콘텐츠개발팀 류효정,
과학팀 지해나,
경영지원팀 하승준 사원

아동콘텐츠개발팀 류효정

- 나는 '일단 해보는' 사람이다. - 고민하고 망설이는 대신 일단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 지치지 않는 강한 열정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동화 스터디·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중 저녁에는 기획·편집 외부 교육을 들으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이야기 창작을 좋아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글로 옮기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벅찹니다.
- 출판 프로세스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가 전문성을 갖춘 편집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허날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블로나 아동 도서전에서 제가 기획한 베스트셀러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학팀 지해나

- 나는 '은은한 불빛 같은' 사람이다. -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아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위를 밝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집념. 목표한 것은 어떻게든 이루려는 성격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애견인으로서 평소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심이 생겨서 유기견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물리 교과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오류 없는 과학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영지원팀 하승준

-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 항상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쉽게 만족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입니다.
- 체력. 아마추어 축구 경력 21년차로 축구로 단련한 체력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근육은 체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 어릴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들과 늘 축구를 했습니다. 직접 축구를 하지 못하면 인터넷이나 TV로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게임도 축구 관련 게임만 합니다. 축구하는 것만큼 유니폼도 좋아해서 전 세계 축구팀의 유니폼을 해외 직구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의에도 완벽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직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언제든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지원파트 박누리

- 나는 '소금 같은' 사람이다. - 음식의 맛을 살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저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표와 완성도를 향한 집요함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근교의 주말농장을 가족과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며 보람도 느끼고 힐링할 수 있어서 다른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 아이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미래엔만의 교육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지원파트 김나현

-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 평소 공상이나 생각을 많이 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도 오히려 더 복잡하게 풀곤 하는데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단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 호기심이 많습니다. 카페에서도 새롭거나 특이

한 메뉴를 자주 시켜 먹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직접 만져보고 관찰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란 말을 자주 합니다.

-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웃기거나 특이한 간판을 많이 찍습니다. 주변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거리를 걸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작가로서 미래엔에서 제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장르는… 아직 못 정했지만요.

영어팀 박혜민

- 나는 '유쾌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사람이다. - 주변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잘 웃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 만큼 저 역시 잘 웃는 사람입니다.
- 실내 인테리어를 좋아합니다. 깔끔한 집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편집자가 되고 싶습니다!



왼쪽부터
디자인지원파트 박누리,
디자인지원파트 김나현,
영어팀 박혜민 사원



만화콘텐츠개발팀 정수현

- 나는 ‘속 깊은’ 사람이다. -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 저의 최대 장점은 공감 능력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 미래엔을 대표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디자인지원파트 이채리

- 나는 ‘팔레트 같은’ 사람이다. - 여러 색을 합쳐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팔레트처럼 모든 사람과 동화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할 때 긍정적인 힘을 북돋아주는 서포터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은 있다’는 생각으로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 영화관이나 전시회 등의 문화 활동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미래엔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공 채 1 0 기 신 입 사 원
반 갑 계 인 사 해 주 세 요 !

사회팀 김수연

- 나는 ‘톡톡 튀는’ 사람이다. -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 빠른 습득력. 한번 배운 것을 잘 습득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 정치 철학 관련 독서. 정치 철학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 한 사람 둷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무팀 이동일

- 나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다. - 소나무는 언제나 푸르다고 하는데 평소에 큰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 꾸준함입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최소한의 목표를 이뤄냅니다.
- 추리 예능이나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범인을 추적하면서 내용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또 범인을 맞쳤을 때 희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마
음
을
읽
다

34 미래엔인의 이중생활
저는 행복한 집사입니다

40 엔키피디아
집콕 라이프 노하우

44 시시풀풀
집에서 일이 잘 될까?

저는 가장 집사 입니다 세상 행복 에서 한

글_교육디자인2팀 이진희 대리
정리_편집실
장소 협찬_바우라움 서울캠퍼스
사진_반려동물스튜디오 하우트



평일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북 디자인에 빠져 사는 이진희 대리. 하지만 퇴근 후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죠. 세상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생인 삼돌이의 집사 역할이 바로 그 것입니다. 삼돌이에게라면 금쪽같은 퇴근 후 시간도 기꺼이 반납하는 그녀가 삼돌이와 함께 바우라움 서울캠퍼스를 찾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알콩달콩

집사 11년 차, 삼돌이와 이렇게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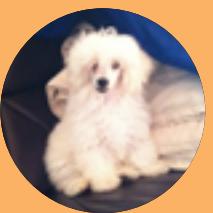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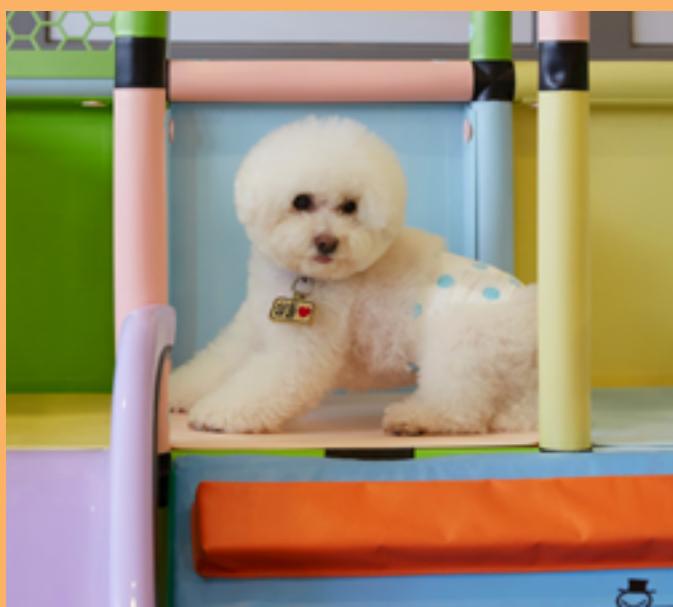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11년차 집사, 교육디자인2팀 이진희 대리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11살 된 푸들, 삼돌이입니다. 유난히 짧은 다리에 보송보송 곱슬거리는 스타일을 쭉~ 고수하고 있는 삼돌이는 스타일만큼이나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귀찮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차도남이죠. 집에서는 상전 노릇을 톡톡히 하지만 서글서글 심쿵 눈빛으로 제게 관심과 사랑을 무심히 던질 줄 안답니다.

삼돌이는 산책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출근 전 20분, 퇴근 후 1시간씩 꼭 산책을 합니다. 특히 저녁 산책 후 공놀이 시간은 삼돌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주말도 삼돌이를 위해 가급적 산책을 나가는 편인데요, 한강이나 식물원처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덕분에 매일 쉴 틈이 없지만 행복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편하게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우라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토닥토닥

삼돌이에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실 삼돌이는 펫 숨에서 한번 분양됐다가 학대받고 파양된 경험이 있습니다. 누더기 털에 심한 눈물 자국… 너무 커버린 삼돌이는 펫 숨에 돌아와서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죠. 그런 사연을 들은 저희 가족이 삼돌 이를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 모두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나쁜 버릇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문 훈련을 받아보자 싶어 지난 해 훈련소를 다녔고, 많이 나아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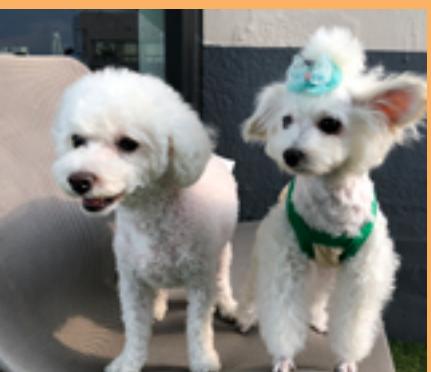
입양 당시
삼돌이 첫 사진



▲ 겨울이 처음 만난 날



▲ 겨울이 최근 모습



▲ 다시 만난 삼돌이(왼쪽)와 겨울이(오른쪽)

더 아픈 현실

반려동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삼돌이와 함께하며 전엔 관심이 많지 않았던 반려동물 복지 문제에 관심이 커졌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펫 숍에 판매될 새끼를 낳는 어미견, 방송이나 유튜브로 유명해진 품종이 다음 해가 되면 유기견 보호소에 넘쳐나는 현실...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유기견 봉사활동 등을 하며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기견 '겨울이'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삼돌이와 꼭 닮은 겨울이 사연을 접한 저는 연차를 내고 대구보호소까지 갔죠. 슬개골탈구 4기에 심각한 치석... 겨울이를 병원에 데려가 수술과 치료를 했고, 다행히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어요. 처음엔 제가 키우려고 했지만 더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입양 준비를 했고, 드디어 겨울이는 평생 가족을 만났어요. 세종시에 사는 신혼부부와 가족이 된 겨울이는 '나나'라는 이름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입양을 인연으로 '나나' 엄마와 친해져 자주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우리, 더 행복하게 지낼게요

오늘 바우라움 변성수 원장님이 꿀 같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삼돌이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람 손길에 대한 두려움을 개선하고, 다른 강아지만 보면 짖는 습관을 고치는 법 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집에 있는 삼돌이를 위해 강박처럼 했던 산책이 오히려 삼돌이를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셨죠. 집사로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장님의 교육법 보정을 통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 관리도 잘했고, 훈련도 잘 시켰다고 칭찬해주셔서 조금 위안이 됐어요.

반려견에게 적지 않은 나이 11살. 동안 소리를 깨 듣는 삼돌이지만, 조금씩 아픈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눈이 불편해 아침저녁으로 약을 챙겨줘야 하죠. 앞으로도 꾸준히 검진 받으며 건강 관리에 신중을 기할 거예요. 그리고 변성수 원장님의 조언을 잘 실천해 삼돌이의 나쁜 습관이 고쳐진다면 예전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사실, 출퇴근도 같이하고 싶은데 그건 절대 안 되겠죠?



**반려견행동전문가
바우라움 변성수 원장님의 조언**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정, 기본 교육을 통한
유대 관계 형성부터 시작하세요”

삼돌이처럼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예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많은 보호자가 이상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교육 기관을 찾기보다는 기본 교육을 정확히 한 후에 행동 교정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 시작은 첫째, 건강상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둘째, 기본 교육을 통해 견주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본 교육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하우스” 그리고 산책 방법까지 총 6가지입니다.

반려견은 주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외부 자극으로 인해 불안할 때, 주인이 “이리 와” 하며 자신의 자리를 명확히 해주면 그 자체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기본 훈련을 꾸준히 하면 주인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 외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죠. 그 후에 행동 교정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심하지 않아! 행복한 집콕 라이프 노하우

글_ 편집실

사회적 거리 유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답답한 집콕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요. 미래엔인들은 어떻게 집콕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미래엔 프로 집순이, 집돌이들의 행복한 집콕 생활 노하우를 모았습니다.



1



4



5

1. 손 편지 쓰기 코로나로 인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하게 되었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손 편지로 근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친구들과 열심히 주고받던 손 편지의 추억을 소환하니 받는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손 편지를 통해 제 생각을 정제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상대방을 향한 저의 안부가 더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생각을 하면 소녀 시절처럼 설렙니다. 여러분도 편지나 엽서를 써보세요! 받는 사람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 출판개발실 김마이 과장

2. 드디어 홈트 시작! 그동안 말로만 듣던 홈트. 요즘 출퇴근에 시간이 들지 않아 업무를 마친 후 바로 홈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업무 집중도도 더 좋아지더군요. 간단한 스트레칭, 맨몸 운동, 밴드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실업예체능팀 박준형 대리

3. 비운 만큼 행복해진다? 옷장, 책상 등을 정리하며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비웠더니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게다가 깨끗한 물건들은 잘 모아서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았어요. 비운 만큼 공간도, 제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 실업예체능팀 이은정 대리

4. 홈카페 오픈 저는 홈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캡슐 커피를 애용했는데, 집콕 생활이 길어지니 캡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원두를 직접 내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커피 내리는 방식과 원두 종류를 바꿔 가며 마시는데, 카페에서 사 먹거나 기성품 캡슐을 마실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네요. - 과학팀 권태정 과장

5. 건강한 음식 해 먹기 재택근무 이전부터 도시락을 사서 다녔는데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로는 도시락을 벗어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해 먹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주말에 일주일간 먹을 음식의 밑재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매일 점심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먹을 좀 더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고요. 요즘엔 택배로 유명 베이커리의 빵이나 커피 원액도 쉽게 주문할 수 있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밀키트를 판매해서 기분 내기에도 좋네요. 하나님붙이자면, 즐겁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택배·마트 기사 분들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아동콘텐츠개발팀 김지예 대리

6.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 주말이면 주로 나가서 외식을 했는데 집에서 아이와 남편과 같이 요리해서 먹으니 시간도 잘 가고 재밌어요. 아이가 직접 하다 보니 맛이 이상할 때도 있지만 아빠는 뭐든 맛있게 먹어준답니다. 식재료를 많이 사서 외식할 때보다 식비가 더 많이 들지만 가족과 소중한 추억이 쌓여 행복합니다. - 교수학습기획팀 김경태 차장



7. 집 인테리어로 분위기 전환을! 요새 특히 길어진 재택근무로 인해 더욱 분위기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집 인테리어를 바꾸며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덕분에 집콕 생활뿐 아니라 업무 효율도 높아진 것 같아요!

-특수교과서팀 이나영 대리

8. 방구석 세계 여행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고요? '구글어스' 클릭 한번이면 이집트 피라미드, 체코 프라하성, 뉴욕 시내 한복판도 다녀올 수 있는 걸요. 지난주에는 '제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읽다가 폭발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현재 모습이 궁금해서 우크라이나로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집이 답답할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구글어스로 방구석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참! 줌이나 구글미트의 화면 공유 기능으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재미와 설렘은 배가 된답니다. - 아동콘텐츠개발팀 류효정 사원

9. 집에서도 댄스? 댄스!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살만 찌고 우울해져서, '저스트 댄스' 게임을 모바일로 다운받아 주말과 점심시간에 운동 삼아 따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면 땀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풀려 기분이 좋아져요. '저스트 댄스'로 집밖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지원파트 홍세영 대리

10. 식물 키우기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파릇파릇한 화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환기를 잊지 않고, 잎에 쌓인 먼지도 털어내고 습도도 조절하다 보니 식물도 사람도 살기 좋은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초등사회팀 김온누리 과장

11. 나만의 챌린지 만들기 나만의 챌린지를 만들어 도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동안 쉬었던 코바늘로 수세미를 열 개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품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분리수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나씩 실천하며 칭찬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요. 집에 있다 보면 TV와 친해지기 쉬운데 TV만 보고 있지 않도록 리모컨을 상자에 넣어 자물쇠를 채우고 하루를 버텨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재택근무가 쉽진 않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즐겁게 버텨보려고요.

-교육디자인2팀 유흥아 과장

12. 중드 이어 보기 미드, 영드보다 우리 정서에 딱 맞는 중드! 정말 재미있습니다. 액션 마블만 있나요. 칼싸움에 장풍 날리고 공중 부양, 순간 이동까지 액션의 정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는 보통 16회죠. 중드는 기본 따블, 따따블이에요. 시간 때우기 이만한 게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기도 딱이고요. 중드는 신체적 접촉이 별로 없거든요. 잘생긴 주인공이 나오는 무협, 추리물, 역사물, 판타지, 궁중 암투 등 골라 보는 재미가 있는 중드! 특히 <장안12시진>, <구주표묘록>, <특공황비 조교전>, <녹비홍수>, <삼생삼세 십리도화> 추천합니다! - 사회팀 이현자 차장



집 에 서 일 이 잘 될 까? 재 택 근 무 직 접 해 보니

글_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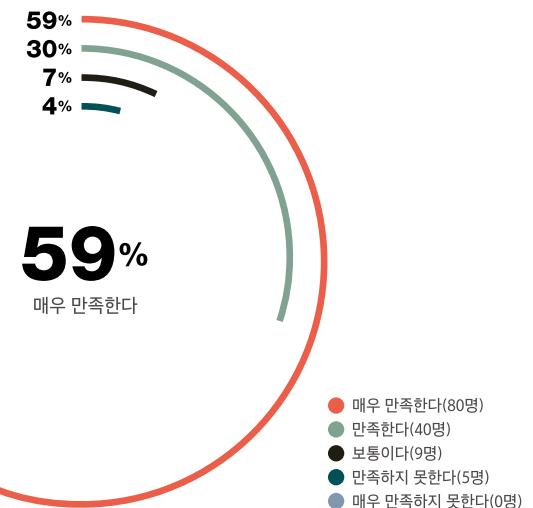
미래엔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 말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 유지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업계 최초로 전면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1년여가 되어가는 지금, 미래엔 임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만족도와 장단점을 들어봤습니다.

*전체 참여자 수: 134명



01

재택근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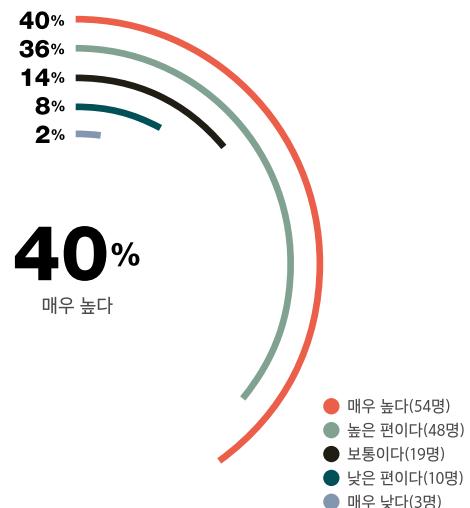


재택근무, 해보니 참 좋더라!

미래엔 임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자의 8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나 불만족으로 답한 의견은 있었지만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02

현장 근무와 비교해 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성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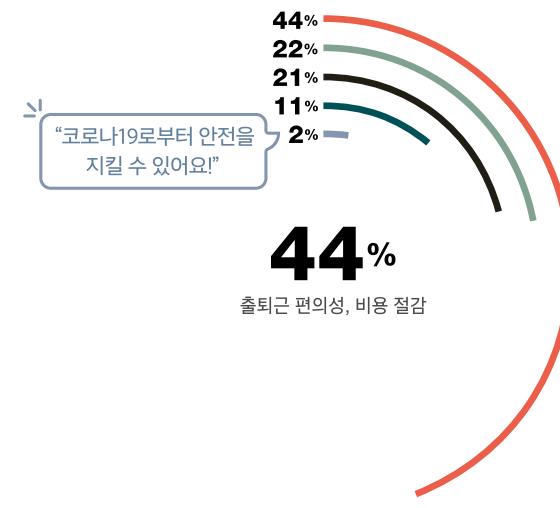


집에서 일하니 일이 더 잘 되네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현장 근무와 비교해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이 매우 높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0%,
높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36%를 차지했습니다.

03

재택근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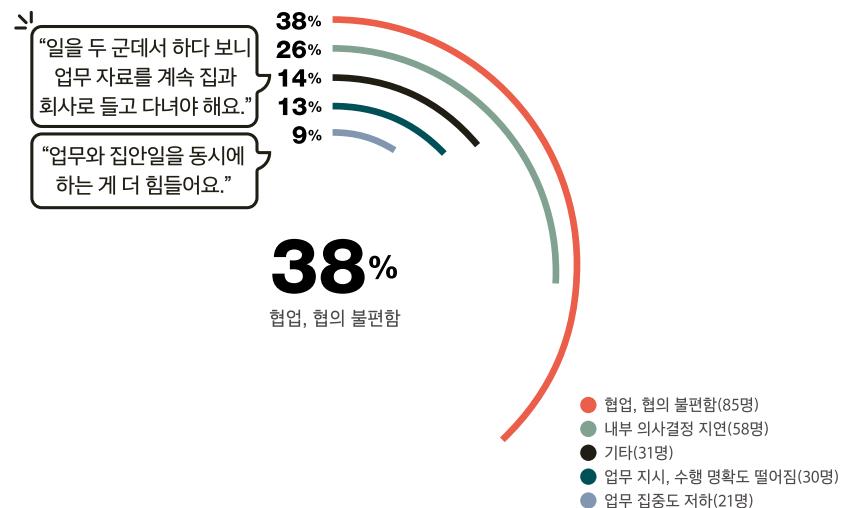


출퇴근에 드는 시간과 비용만 아껴도!

미래엔 임직원들은 출퇴근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44%)을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수면 시간이 늘었다’,
‘육아 문제가 해결됐다’ 등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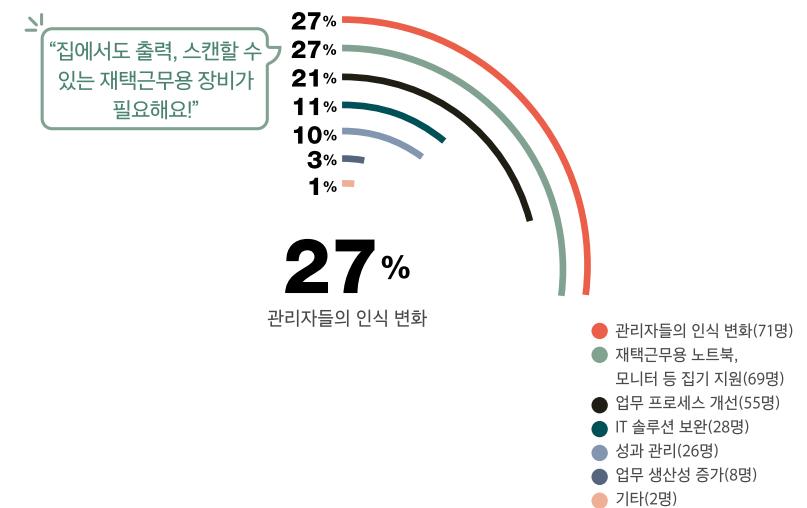
04

재택근무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택2)



05

재택근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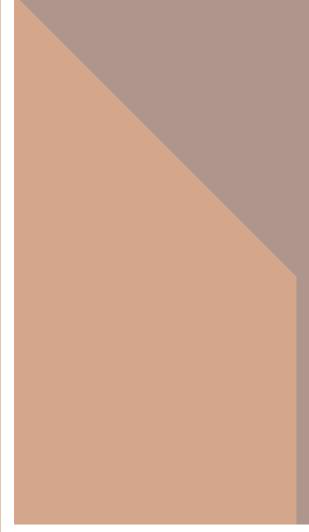


그래도 사무실이 그리울 때가 있다

반면 재택근무의 가장 큰 단점으로 ‘협업과 협의의 불편함(38%)’이 1위로 꼽혔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의 지연(26%)’과 ‘업무 지시와 수행의 명확도가 떨어진다(13%)’는 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택근무 잘 하려면 인식 전환, 사무집기 지원부터

재택근무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27%)’와 ‘재택근무용
집기 지원(27%)’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출근과 재택근무의
비율을 적절히 섞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습니다.



52 수상한 책방

껌오책방

58 세 개의 단어

동화작가 임지형이 말하는
『방과 후 슈퍼 초능력 클럽』

당신이 채워줄 때 완성되는 그곳, 짬오책방

글_ 편집실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책방을 찾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책장에서 위로의 시그널을 찾다 보면 어느새 안도를 느끼죠. 여기 역으로 반을 비워두고 찾아오는 이에게 부족한 반을 채워달라는 책방이 있습니다. 책방을 찾는 사람들과 15명의 책방 주인들이 완성해가는, 짬오책방입니다.

책은 책방에서, 커피는 옆집에서

경기도 파주시 꽃아마길 35, 교하신도시의 평범한 마을 모퉁이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곳곳에 책이 가득한 걸 보니 책방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책방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카페처럼 꾸며진 주방도 있고, 여럿이 모일 수 있는 회의실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데 서가에는 여유 있게 책을 살펴보며 담소를 나누기에 좋을 것 같은 테이블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간판, '짬오책방'.

"책과 차의 조합을 다른 방향으로 찾았어요.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면 옆집 골목 카페에서 여기로 배달해 주시거든요. 손님은 북카페가 아니더라도 책방에 앉아 구입한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는 셈이죠."

이정은 조합원은 짬오책방의 시작을 2008년 문을 연 교하도서관이라 소개합니다. 당시 새로 들어선 도시에 생겨난 교하도서관은 문화 인프라에 목말랐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는데요, 이곳에서 짬오책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독서 모임 '책벗'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책벗' 멤버들은 책을 무척 좋아해서 도서관은 물론 마을에서도 수시로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2016년 마을 이웃들이 책방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책벗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



이정은 조합원과 차미짱 조합원

이에서 ‘우리만의 책방을 만들어 볼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정말 책을 좋아하는 마음에 단골 카페 한구석을 점유하다시피 빌려서는 책방이랄 것도 없는 책방을 시작했죠. 그리고 모임의 누구도 완벽한 이가 없다며 미완성의 0.5, 짐오책방이라 이름 붙였어요. 책방을 찾아주는 당신이 채워줄 때 비로소 1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2016년 6명의 멤버가 모여 문을 연 짐오책방은 자릿세만 내고 나면 그만. 돈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서재 같은 곳이었습니다. 읽고 싶은 것을 함께 읽고, 좋은 것을 권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책방이었죠.



마을의 거실 역할을 하는 짐오책방에선 매달 북토크와 문학 강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15명의 책방 주인이 꿈꾸는 지속 가능한 덕질

2년간 그들만의 ‘덕질’을 즐겨오던 짐오책방은 2018년 ‘더 많은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덕질’을 꿈꾸며 협동조합이란 형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6명이던 멤버는 두 배가 넘는 15명으로 늘어났고요. 이마담, 차미짱, 소소, 다솜, 시시, 곰토미, 노마, 입마, 휴고… 책방 주인이 된 15명은 서로의 이름 대신 닉네임을 부릅니다. 나이나 직업, 신분의 차이 없이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자는 조합원들의 뜻이 모인 결과입니다.

“사실 친목 모임처럼 운영해오다 조합이란 형태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명만 더 늘어나도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맞춰간다는 것, 그리고 함

께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으로 출발한 짐오책방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이나 강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꾸준히 찾는 사람이 생겨났죠. 그리고 2019년 11월, 그동안 세들어 살던 카페에서 독립해 땅콩문고가 있던 상가 1층에 어엿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책방으로 오면서부터 조합원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는지 이사 오자마자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기존에 해왔던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공연은 더 활발해졌고, 성악 하는 조합원이 커뮤니티 아트라는 소모임을 만들고, 사회학 하는 조합원은 자그마한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죠.”



사서, 디자이너, 성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조합원들은 회의 때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관심사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재미있고 독특한 기획을 완성했습니다. 이들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호응했고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이후 그 기회를 자주 만날 수 없지만요.

“유튜브 채널 ‘짬오책방’도 조합원이 온라인으로 뭔가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아 개설한 것인데요, 그 덕분에 작가와의 대화나 인문학 강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여기

에 우리 차미짱도 크게 활약하고 있어요.”

5년 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일본인 차미짱은 교하도서관에서 이정은 조합원과 함께 일본어 공부 모임을 하면서 짬오책방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합원으로서 누구보다 마을을 사랑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열정적인 짬오책방의 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는 아이디어도 넘쳐서 일본 축제인 마츠리를 열기도 하고, 책방 한켠에 다양한 국가의 동화책을 모아놓은 ‘작은 다문화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짬오책방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거실, 마을의 책방을 꿈꾸며

짬오책방은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마을의 거실을 꿈꿉니다. 그래서 『디어 교하』와 같은 지역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편집하도록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 ‘책술개꿀’에도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파주 교하라는 도시가 침체되어 가는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소통하는 생기 있는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이 가진 역량을 모아 마을 단위의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짬오책방은 동네 책방을 중심으로 독서를 통한 느슨한 연대를 이름으로써 지역 문제를 풀어보자는 기획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창의혁신형(도시재생)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 파주 공공도서관 등과 함께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신선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결하는 곳, 하지만 짬오책방의 정체성은 단연 책방입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장르의 좋은 책을 소개하는 데 게을러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서 경험을 가진 큐레이션 팀이 직접 책을 추천하거나 책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손님이 늘면서 그림책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 비어 있는 짬오를 채워가고 또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가에 차곡차곡 꽂혀 갑니다.

“우리의 행보는 돈벌이와는 거리가 멱니다. 하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좋은 책을 읽고, 함께 모이는 날이면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마을을 활성화할 새로운 방안도 차근차근 쌓는 중이죠. 이런 시간 속에서 조금씩 책방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함께 1을 만드는 마을의 책방, 짬오책방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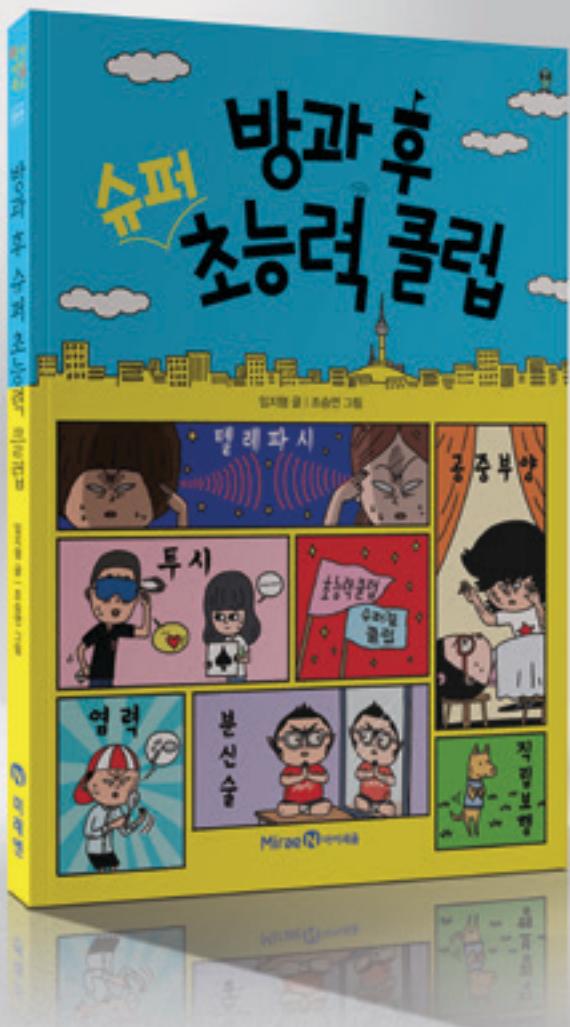


짬오책방

주소 파주시 꽃이마길 35(문발동)
문 여는 시간 화~토요일 오후 1시~7시
 (*코로나19로 단축 운영 중, 일~월요일 쉼)
전화 031-942-3255
홈페이지 <https://booksdot5.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ooksdot5/>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ooksdot5/>
카카오톡 채널 짬오책방

놀이와 우정, 그리고 성장 동화작가 임지형이 말하는 「방과 후 슈퍼 초능력 클럽」

글_ 임지형
정리_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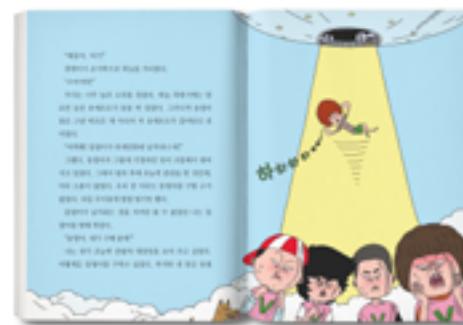


동화로 아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져주는 작가 임지형. 「방과 후 초능력 클럽」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냈던 그가 더 신나고 강력해진 「방과 후 슈퍼 초능력 클럽」으로 돌아왔습니다.



“2권은 언제 나와요?”

「방과 후 슈퍼 초능력 클럽」은 순전히 독자들 덕분에 쓰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전편인 「방과 후 초능력 클럽」을 발간한 후 학교로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요. 첫 학교에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2권은 언제 나와요? 5권까지 써 주세요. 아니요. 10권까지 써 주세요.”



처음엔 ‘재미있게 읽었으면 그럴 수 있지’ 하며 그려려 했는데 강연을 할 때마다 같은 반응을 접하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2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듣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서 그것을 넣었어요. 이 작품을 쓰게 한 것도 ‘아이들’이고 완성도 ‘아이들’ 덕분에하게 된 셈이죠.

「방과 후 슈퍼 초능력 클럽」은 1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초능력 클럽의 대장 동엽이가 전학을 가고 그 뒤를 민성이가 이어받으며 시작합니다. 민성이는 동엽이의 빈자리에 자신이 좋아하는 연희를 영입하려고 하지만 팀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요.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연희가 초능력 클럽에 대적하는 슈퍼걸 클럽을 결성하면서 두 클럽이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편에서는 거의 남자아이들만 나오지만 이번 책에선 연희를 비롯해 지혜, 민소 같은 여자아이들이 나오면서 남녀 대결 구도로 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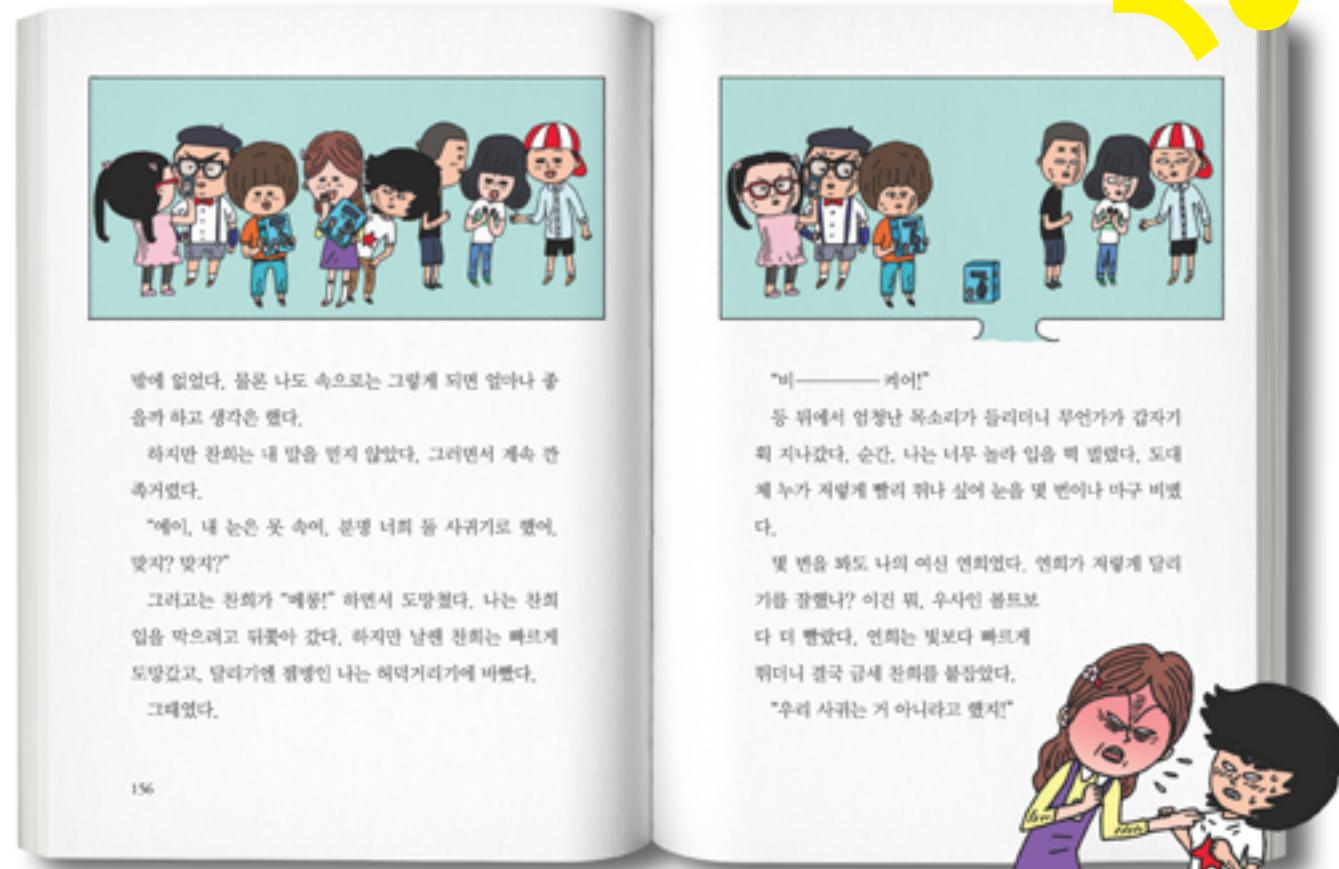
놀이, 우정 그리고 성장

이 책은 ‘놀이, 우정, 성장’이 세 단어로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는 아이들이 가진 최고의 권리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길 바랐어요. 노는 것이야말로 아이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요. 친구들과 만나면 수다 떠는 일 외에 특별할 것이 없는 어른들에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책 속의 주인공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실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우정**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 게 될 거예요. 전편과 달리 2편에서는 이야기를 남녀 대결 구도로 만들면서 ‘남자’니까, ‘여자’니 까로 성별을 구분 짓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평소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대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길 바라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면서 우정을 쌓고 그 우정 속에서 **성장**해요. 두 클럽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진짜 대장이 되어 가는 주인공 민성이의 모습, ‘다르다는 것’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아닌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로 깨닫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분명 독자들의 마음도 함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분명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책을 읽었다기보다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책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방에 없었다. 물론 나도 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찬희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한 쪽거렸다.

“에이, 내 눈은 못 속여, 분명 너희 둘 사귀기로 했어, 맞지? 맞지?”

그리고는 찬희가 “예풍!” 하면서 도망쳤다. 나는 찬희 입을 막으려고 뒤쫓아 갔다. 하지만 날엔 찬희는 빠르게 도망갔고, 달리기엔 절망인 나는 허덕거리기만 했다.

그때였다.

196



“비——— 켜어!”

등 뒤에서 엄청난 목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갑자기 퇴 치나갔다.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벅 벌렸다. 도대체 누가 저렇게 빨리 쥐나 삶에 눈을 몇 번이나 마구 비웠다.

몇 번을 봐도 나의 예상 연희였다. 연희가 저렇게 달려 기를 잘했나? 이런 뭐, 우사인 볼트보 다 더 벌었다. 연희는 빛보다 빠르게 퇴더니 결국 금세 찬희를 불잡았다.

“우리 사귀는 거 아니라고 했지!”



마음의 힘을 키우는 ‘동화’의 매력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민성이와 연희가 사귄다고 놀리며 도망치는 찬희를 연희가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민성이가 찬희를 막으려고 쫓아가지만 원체 달리기를 못해 잡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 우사인 볼트만큼이나 빠른 연희가 “비——— 켜어!” 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요. 제가 어릴 적 누가 놀리면 꼭 연희처럼 바로 쫓아가서 응징을 했거든요. 이처럼 동화는 어린 시절의 나, 아직 덜 자란 내 안의 ‘어른 아이’와 마주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앞으로도 「방과 후 초능력 클럽」 시리즈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시리즈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책에 나오는 익숙한 인물들 때문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방과 후 초능력 클럽」은 연재할 만한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적개는 5권, 많게는 10권까지 내고 싶어요.

특별히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진 담당 편집자인 백한별 차장님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백 차장님은 「우리 반 육 킬러」 때부터 저와 함께 작업하면서 항상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챙겨 주시는데요. 함께 작업할 때마다 배우는 지점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평생 함께 작업하자”고 말하곤 한답니다.



동화작가 임지형은 2008년 무등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이 쓰고 싶어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우연히 동화 쓰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내 안의 '어른 아이'를 위로 해주는 동화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채널 동화처럼', '생각학교 스쿨북스'를 통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Q. 아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짚어내는 동화작가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계신데요. 평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동화를 쓸 때 다른 누구보다 제 마음을 들여다 봐요. 결국 제 안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 다른 아이들의 마음 또한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아이나 어른이나 몸집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리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줘야 합니다.

Q. 집필하신 책 중에 집필 과정이 기억에 남거나 대표작으로 꼽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집필 과정으로 따져보면 가장 힘들었던 책은 바로 「마루타 소년」입니다. 자료 찾기도 힘들었지만 주인공의 삶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쓰는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일제 강점기 생활고에 못 이겨 마루타가 된 소년 경복이와 일본인 소년 테츠오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울면서 쓸 때도 많았고 책으로 나오는데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장편으로 처음 쓴 작품이라 수십 번을 고쳐 쓰면서 '쓰는 힘'과 '작품을 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대표작은 미래엔 아이세움에서 출간한 「우리반 육 킬러」나 「방과 후 초능력 클럽」이 아닐까 싶어요. 이 두 책들이 저를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줬기 때문이죠.

Q. 2011년부터 쉬지 않고 많은 어린이 책들을 내놓으셨는데, 다작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늘 쓰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 작품을 쓰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작품을 쓰고 있을 때가 안 쓰고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매일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요즘 저는 달리면서 오디오북을 듣는데요, 몸을 움직이면서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그 아이디어를 놓칠까봐 뛰다가도 핸드폰에 메모하기도 하죠. 이렇게 메모해놨던 씨앗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Q. 앞으로 동화작가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장르 불문하고 많은 작품들을 쓰고 싶어요. 올핸 청소년 소설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앤솔러지 작품을 시작했는데 장편까지 쓰고 싶고,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을 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과 책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재미있는 작품을 써내는,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진'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한번 손에 들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을 쓰는 마력이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엔을
읽다

미래엔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하루 한장 한국사 1, 2, 3
저자_ 최태성

하루 한장 창의력
쏙센 1~12
저자_ 미래엔콘텐츠연구회

스타 역사 강사 최태성(큰별쌤)이 재미있게 풀어 쓴 한국사 이야기를 읽고 퀴즈를 풀며 실력을 키우는 초등 한국사 교재이다. 하루에 한 장으로 한국사 실력을 기초부터 단단하게 잡아 준다. 교재는 총 세 권으로 시대별로 구성하여 한국사의 전 시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에 속속 들어오는 큰별쌤의 짧은 강의 영상도 함께 제공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도 수록하여 더욱 든든하다.

연산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 구성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 놀이터는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끌어올려 준다.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해설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룩(LOOK) 중등 품사, 문법,
구문, 독서, 문학, 문법, 수학 1(상),
2(상), 3(상), 사회 ①, ②, 역사 ①, ②,
과학 1, 2, 3
저자_ 미래엔콘텐츠연구회

어려운 내용도 비주얼 자료로 '룩(LOOK)' 하면 '놀'듯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주얼 개념서이다. 중학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핵심 개념만을 비주얼화하여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핵심 개념을 한눈에 정리하며 기본을 다지고, 비주얼 자료로 쉽게 이해하며 공부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개념을 익히고 별도로 구성된 실전 문제로 학교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음표 현대시, 현대 산문,
고전 시가, 고전 산문
저자_ 김균홍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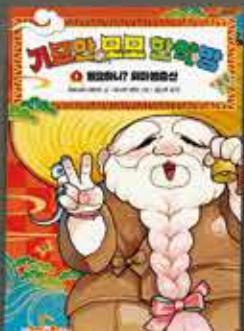
핵심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며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배우는 프리미엄 문학 종합 해설서이다. 작품의 주제를 깨뚫는 질문과 그 답을 찾는 친절한 설명을 따라가면 시대별 주요 작품의 맥락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작품 전체를 이야기로 풀 스토리텔링과 그림으로 제시한 이미지텔링으로 작품을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한 뒤에는 앞에서 확인한 작품 감상의 포인트가 기출 및 예상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N기출 수능기출 문제집
수학I+수학II 3점 집중, 수학I+수학II
4점 집중, 학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저자_ 미래엔콘텐츠연구회

최근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수록한 기출 문제집이다. 수학영역 3점, 4점 기출 문제를 과목, 선택 과목으로 분책하고 수능을 배점별, 유형별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제편에서는 수능에서 어려울 줄 알았던 주제를 단원 및 유형을 분석하여 빈출 유형명과 유형을 공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설편에서는 문제 분석을 훈련하고, 사고의 과정에 따라 필요한 개념과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미래엔아이세움



고양이 소녀 키티 1, 2

저자_ 폴라 해리슨 |
그림_ 제니 뢰블리 외 | 번역_ 최현경

24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판타지 동화이다. 고양이 소녀 키티는 낮에는 사람, 밤에는 고양이로 변신하는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다. 키티는 새까만 그림자가 드리운 밤이 무섭기도 하지만 엄마처럼 멋진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다. 1권에서 키티는 짜릿한 달빛 모험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돋는 멋진 '영웅'으로 성장한다. 2권에서는 보름달의 빛줄기가 환하게 쏟아지는 밤, 키티가 친구와 함께 마법의 힘을 지닌 황금 호랑이 동상에 소원을 빌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도토리랑 콩콩

저자 · 그림_ 윤지희

세련된 화면 구성과 뛰어난 색채 감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수의 그림책을 짓고 그린 그림책 작가이자 어린 아들의 엄마, 윤지희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는 '첫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귀여운 견과류 친구들에 빗대어 다정하게 보여 준다. 작가는 투병 중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작품 속 도토리처럼 여러 친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받고, 싸우다가 화해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작품을 완성했다.

기묘한 모모 한약방 1: 필요하니? 퇴마봉총산

저자_ 히로시마 레이코 |
그림_ 다나카 아이 | 번역_ 김난주

모모 씨가 소원을 이뤄주는 신기한 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싹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살다 보면 아주 약간의 실수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 곤란에 빠지는 일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났을 뿐이었는데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에 딸랑딸랑! 맑고 아름다운 방울 소리와 함께 해결사 모모 씨가 찾아온다.

내일은 발명왕 32: 지구 환경을 위한 발명

저자_ 곰돌이 co. |
그림_ 홍종현 | 감수_ 박완규, 황성재

흥미진진한 발명 대결을 통해 어렵고 멀기만 느꼈던 발명을 쉽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접하게 도와주는 발명 대결 만화이다. 32권 '지구 환경을 위한 발명' 편에서는 바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바다 쓰레기통, 플라스틱 우유 통을 재활용해 만드는 취침 등처럼 기발한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발명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등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화두 및 과학 이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총몇명 스토리 5

원저_ 총몇명 |
저자_ 윤종문 | 감수_ 샌드박스네트워크

인기 유튜브 콘텐츠 '총몇명 스토리'를 만화책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시리즈이다. '총몇명 스토리 5'는 시즌 1의 마지막 권으로, 지구 종말을 꿈꾸며 부락토스를 부활시키는 부락토스교, 루시퍼와 부락토스의 최후의 결전 등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역대급 사건들을 담았다. 또한 시즌 1 완간으로 아쉬움을 느낄 독자들을 위해 원작자 '총몇명'의 특별 인터뷰를 수록해 재미를 더했다.

싱가포르에서 보물찾기

저자_ 안치현 | 그림_ 강경효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유서 깊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떠나는 보물찾기 대모험 「세계 도시 탐험 만화 역사 상식」 시리즈에서 열아홉 번째로 만나 볼 곳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이다. 통통 튀는 캐릭터들이 꾸려 가는 흥미진진한 만화 각 장의 뒷부분에는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정보 페이지를 수록하여 세계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북 풀리오

와 이 즈 베리

현대문학



미드나잇 선 1,2

저자_ 스테파니 메이어

엔드 오브 타임

저자_ 브라이언 그린

공정하다는 착각

저자_マイ클 샌델

전 세계적으로 1억 6,000만 부 이상 팔린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에드워드 캔렌과 벨라 스완이 만난 「트와일라잇」은 로맨스 소설의 정석이었다. 지금까지 시리즈가 벨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했다면, 이번 「미드나잇 선」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에드워드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준다. 에드워드의 과거와 복잡한 속마음을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어째서 이 사랑이 에드워드의 삶에 본질적 고통으로 작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인간의 역사와 노력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엘리건트 유니버스」, 「우주의 구조」 등 명저를 집필하며 칼 세이건 이후 최고의 '대중 과학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브라이언 그린이 10여 년 만에 펴낸 이 책은 2020년 출간 즉시 미국 아마존 과학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주의 시공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아주 우아하고 단순한 수학 법칙을 따른다. 저자는 이 법칙을 토대로 우주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안내한다.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 본다.

꼭두각시 조종사

저자_ 요슈타인 가아더 | 번역_ 손화수

방대한 서양 철학을 소설로 풀어내 전 세계 4,500만 부 판매고를 기록한 「소피의 세계」 작가 요슈타인 가아더의 신작 장편 소설이다. 그동안 철학, 역사, 종교, 진화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그 메시지를 소설로 풀어냈던 저자는 이 책에서 노년의 언어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오늘날 유럽 대부분 언어의 뿌리인 ‘인도유럽어족’을 탐구하며 그의 인생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유구한 언어의 역사 속에서 소속감을 찾는 고독한 언어학자의 진실과 허구가 뒤섞인 삶의 고백이다.

그 남자네 집

원저_ 박완서

‘한국 문학의 어머니’ 박완서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다. 『현대문학』 창간 50주년 기념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작가가 “힘들고 지난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문학’에 바치는 헌시”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작품이다. 타계 10주기에 맞추어 출간된 이번 개정판에는 유종호, 김화영, 구효서, 구본창 등 한국 문단과 문학예술계 주요 인사들의 추모 메시지와 함께, 작가의 딸인 호원숙 씨가 어머니의 10주기에 바치는 에세이 「그 남자네 집을 찾아서」를 특별 수록했다.

내가 되는 꿈

저자_ 최진영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을 선정, 신작 시와 소설을 수록하는 월간 『현대문학』의 특집 지면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서른 세 번째 소설선, 최진영의 「내가 되는 꿈」이 출간되었다. 2006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이 시대의 현실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직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문학적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의 이번 신작은 2020년 『현대문학』 5월호에 발표한 소설을 퇴고해 내놓은 것이다. 존재를 지우고 싶을 만큼 상처 깊은 한 여성이 유년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 보고 나라는 존재, 나와 얹힌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미래엔

김영진 회장,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이 2020년 11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영진 회장은 그룹의 모태 사업인 교육출판업을 기반으로 에너지·레저·완구 산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해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으며, 미래엔그룹을 모범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래엔의 교육 재단인 (재)목정미래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 사업과 각종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중견기업 대표자 부문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선정됐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와 '학교공간혁신' 정책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초등학교에 다양한 참여형 혁신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 기업으로서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초등 참고서 브랜드 '하루 한장', 유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 성인 출판 브랜드 '북폴리오', '와이즈베리'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지식 보급에 노력하는 동시에 해외에도 저작권을 판매함으로써 출판 한류를 이끌고 있다.



미래누리Q 골프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미래엔이 3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미래엔 본사에서 '2021 미래누리Q 골프단' 학생들에게 골프 용품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미래엔은 초등학생 골프 꿈나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하며 실력을 키우고, 사회에 혁신하는 골프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올해 목정미래재단, 골프클럽Q와 함께 2021 미래누리Q 골프단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주관으로 선발전을 진행했다. 골프단에는 안성현(용인나산초 6학년), 현세린(용인석성초 6학년), 추예준(원주구곡초 6학년), 박지영(서울금성초 6학년), 김태호(화성동탄중앙초 3학년), 김아란(용인중일초 4학년) 총 6명의 꿈나무가 최종 선발됐다. 미래엔은 2021 미래누리Q 골프단 학생들에게 골프 용품 무상 제공 및 골프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 밖에 월 2회 골프클럽Q 정기 라운딩 및 맞춤형 피트니스도 제공한다. 또한 어린 선수들이 올바른 인성과 학업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엔이 출간하는 다양한 도서들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등 교육적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학습 스케줄 관리 앱, '하루 한장 앱' 출시

공부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앱'이 출시되었다. 하루 한장 교재를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앱'은 교재를 학습하는 아이들이 캐릭터 '하루'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다. 앱과 함께 개발된 공부 친구 '하루'는 종이의 특징을 살린 호랑이 캐릭터로, 학습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루 한장 앱은 카메라로 표지를 비추면 손쉽게 교재 등록이 가능하며 학습 계획을 세우면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학습 플래너 메뉴를 통해 일별, 주별로 학습 계획을 확인하고 학습 완료 후 교재 속 QR코드를 찍으면 '하루 템'을 획득할 수 있다. 등록한 교재를 완독해 하루 템을 모두 모으면 '골든 티켓' 1장이 발급되고 골든 티켓은 '하루 랜드'에서 모바일 선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AI 기반 수학 학습 서비스 '알로M' 론칭

미래엔이 인공 지능(AI)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교육 브랜드 '알로M(ALO-M)'을 론칭했다. 미래엔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학원 운영의 어려움 및 개별 맞춤 학습과 비대면 학습 등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중학생 대상 학원용 AI 기반 수학 학습 서비스 '알로M'을 선보였다. '알로M'은 AI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습 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학습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생이 부족한 내용을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돼 학습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학습 후에는 세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최대로 높여 준다. 또한 '알로M'은 '인공 지능 수학반' 수업 운영 모델을 제공해 학원에서 별도의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 학습을 할 수 있고, 강사는 개별 코칭에 집중할 수 있어 학원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엔
에듀파트너

신규 제품 및 교육 서비스 출시

제주대 리더십 역량 강화 캠프 진행

미래엔에듀파트너가 2021년 상반기 다양한 신규 제품 및 교육 서비스를 출시했다.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드림메이커스쿨'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직업 체험, 미래의 나를 디자인하는 진로 코칭 교육, 캠프형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를 이해하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맞춤형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한다. '신나는 과학 실험'은 실험 도구와 안전 실험 지침을 포함한 실험 도구 조작 방법 동영상, 실험 원리 및 실생활 현상 경험을 담은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교과와 연계된 실험으로 학생 혼자서도 실험이 가능해 정규 수업은 물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 현장 및 홈스쿨링을 원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학교장터 및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다. 또한 미래엔에듀파트너의 교육 서비스 플랫폼 씽크펀아이는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통해 영어 강좌를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 및 코딩, SW 과정을 오픈했다. 미래엔의 초등 영어 교재 '하루 한장 English Bite'의 '파닉스'와 '초등영문법' 수업도 함께 출시되었다.



영실업

또봇 트랜스포메이션 챔피언십 개최

영실업이 국내 최초로 TOY-스포츠 '또봇 트랜스포메이션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이번 챔피언십은 또봇의 변신과 합체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는가를 겨루는 대회로, 10세 이하 어린이 10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10명의 본선 진출자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예선전에서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 총 3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펼쳐진 또봇 트랜스포메이션 챔피언십 본선은 2월 24일, 2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회 영상은 순차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시크릿 쥬쥬 별의 여신>
MBC TV 방영

<시크릿 쥬쥬 별의 여신> 시리즈가 1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MBC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30분 기준 총 12편의 에피소드가 4월 초까지 방송된다. <시크릿 쥬쥬 별의 여신>은 인간으로 환생한 12번째 여신 쥬쥬가 인간 세계에서 나머지 11명의 여신을 찾아 천상계와 인간계의 평화를 지키며 일어나는 용기 있는 도전을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4~7세 여아들에게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무한한 미래를 꿈꾸게 한다.



영실업

미래엔
에듀케어

'콩순이의 율동교실 6기' 런칭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통해 7대 놀이 영역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콩순이의 유통교실' 콘텐츠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동작을 따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공감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전인적(지성, 감성, 의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6기 시리즈는 유명한 세계 동요, 친숙한 대중가요 음원을 콩순이 스타일로 제작하여 선보임으로써 국내외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명 대중가요 '빠빠빠' 컬래버레이션 음원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0곡의 유통교실은 콩순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 영어로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엔에듀케어는 3월, 인천 송도에 에듀케어의 유아 놀이 교육 기관 '위버지니어스 송도원'을 오픈한다. 위버지니어스 송도원은 다년간의 유아 교육 경력을 갖춘 선생님들로 교사진을 구성하고, 깊이 있는 교육 및 세심한 케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숙희 원장은 "위버지니어스가 많은 아이가 경험해 보고, 찾고 싶은 놀이 교육 기관으로서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이들이 위버지니어스 송도원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약속한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위버지니어스 송도원 신규 오픈

미래엔
서해에너지

제12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참여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020년 12월 4일, '제12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당진시 순성면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아 생활필수품 지원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도시가스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방지하고자 사전 안내를 통해 대상 세대에게 생활필수품인 쌀, 그리고 담요 등의 보온 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안전 사용 가이드를 배포함으로써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 상황에 도시가스 업계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충남서북부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서 에너지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 쓸겠다."고 밝혔다.



이웃돕기 성금 1억 5,000만 원 기탁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020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및 지역 장학금 총 1억 5,000만 원을 충남도청과 공급권역 5개 시군에 전달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도청에 1억 원,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에는 각 1,0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으며, 홍성군에는 지역사랑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지자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 및 지역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매년 충남도청과 5개 시군에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박영수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모두가 희망을 얻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에너지기업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호를 읽고



“우석 김기오 선생의 업적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정애주(성남시 분당구)

미래엔 창업주 우석 김기오 선생은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계몽과 교육으로 무너진 민중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셨더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짧지만 치열한 삶을 사신 우석 선생의 일대기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잘 표현되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또 한 분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어 무척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문화생활에 단비 같은 정보였어요”

강호우(인천광역시 남동구)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많은 전시회가 기약 없이 취소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엔 사보를 통해 ‘너의 감정과 기억 展’이라는 멋진 전시를 볼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던 서점을

지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반가웠어요”

권선미(경기도 용인시)

얼마 전 이유미 작가님의 「자기만의 (책)방」을 읽고 작가님이 운영하는 ‘밀줄서점’에 꼭 방문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래엔 사보 지면을 통해 자세히 만날 수 있어 정말 반가웠어요. 밝고 환한 책방 내부의 풍경도 정겨웠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센스 가득한 큐레이팅 메모를 찾아 읽으며 책방지기가 추천하는 책들을 읽어보는 각별한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춘 취미와

배움의 방법을 알 수 있었어요”

오민서(광주광역시 북구)

‘3인 3색 온라인 클래스 이야기’ 칼럼을 특히 잘 봤습니다. 매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계획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체험자분의 소감이 와닿더군요. 저도 새롭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자리잡은 이때, 원데이 클래스도 요즘은 원격 수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늘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미래엔 사보에 감사드립니다.



“신체 움직임에 대해 둘이켜보게 됐어요”

김영숙(천안시 서북구)

인공 지능 시대에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죠. ‘시시풀풀’의 건강 관리에 대한 칼럼을 보며 우리는 정말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머리에 가득하고, 또 수집도 쉽지만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살고 있었음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정과 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동일(경상남도 거제시)

‘나를 믿어 준 동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칼럼을 유심히 봤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소중함을 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크나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미래엔 직원분들의 서로를 북돋아 주는 말 마디를 보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말 한마디에도 온정을 담아 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미래엔 사보 덕분에 마음 훈훈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 두 배, 슬픔 반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영지원팀	김형근 차장	20.11.02
정보인프라팀	허민행 대리	20.12.01
만화콘텐츠개발팀	이은녕 대리	20.12.14
채널영업팀	전지현 사원	21.01.11
경영지원팀	하승준 사원	21.01.11
재무팀	이동일 사원	21.01.11
아동콘텐츠개발팀	류효정 사원	21.01.11
만화콘텐츠개발팀	정수현 사원	21.01.11
과학팀	문지혜 대리	21.01.14
초등국어팀	신지원 사원	21.02.01
국어팀	장경주 사원	21.02.01
영어팀	박혜민 사원	21.02.01
사회팀	김수연 사원	21.02.01
초등수학팀	배정현 사원	21.02.01
과학팀	지해나 사원	21.02.01
디자인지원파트	김나현 사원	21.02.01
디자인지원파트	이채리 사원	21.02.01
디자인지원파트	박누리 사원	21.02.01
생산지원팀	김환희 사원	21.02.01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초등사회팀	조혜민 부친 칠순	20.10.23
경영기획팀	배윤희 부친 회갑	20.10.30
만화콘텐츠개발팀	김수지 모친 회갑	20.11.11
마케팅지원파트	김나영 시부 칠순	20.11.23
제책파트	윤종환 모친 칠순	20.12.25
실업예체능팀	최민우 부친 칠순	20.12.27
채널영업팀	이유리 시모 회갑	21.01.04
초등국어팀	박종택 부친 회갑	21.01.05
디자인지원파트	홍세영 모친 회갑	21.01.14
과학팀	최진호 장모 회갑	21.01.20
초등국어팀	이상아 부친 회갑	21.01.30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윤전과	윤재기 자녀 결혼	20.10.17
경영지원팀	조아련 본인 결혼	20.11.01
특수교과서팀	이학성 본인 결혼	20.11.15
국어팀	심현진 시형제 결혼	20.12.05
시설관리과	송낙범 본인 결혼	20.12.06
시설관리과	이선희 자녀 결혼	20.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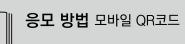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세요

제책파트	김형기 자녀 출산	20.11.17
수학팀	이선희 자녀 출산	20.12.03
초등국어팀	이준영 자녀 출산	20.12.30
과학팀	최한나 자녀 출산	21.01.05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국어팀	이은지 외조모상	20.10.10
수학팀	김윤지 조부상	20.10.10
출판디자인팀	김리안 조모상	20.10.25
실업예체능팀	이은정 외조모상	20.11.07
교육영업팀	이종혁 조부모상	20.11.07
디지털콘텐츠연구소	이가영 조모상	20.11.08
교육디자인1팀	원유희 조부상	20.11.10
실업예체능팀	송시은 외조모상	20.11.26
과학팀	박희주 부친상	20.12.04
교육디자인2팀	김지나 외조모상	20.12.11
영어팀	김미미 모친상	20.12.15
국어팀	한솔 조모상	21.01.07
제책파트	윤종환 조모상	21.01.26

사보 독자 참여



응모 방법 모바일 QR코드

사보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좋은 사보를 만들겠습니다.
 신규 구독 신청 및 소정의 사은품 배송을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Mirae N